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연합하셨습니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Nicodemus)가 영생에 대한 교훈을 듣기 위해 예수께 찾아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우리가 어찌할꼬?

오순절날,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믿으므로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습다(행 2:37).

그리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구원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 때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는 구원의 길,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명백하게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8)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3단계를 확실하게 선포했습니다.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오직 이 한가지 길 외에는 없습니다. 베드로의 멧세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실제적 설명입니다.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들을 포함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행 2:39)

구원이 불확실한 신자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믿는 신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성령에 대해 물어 보았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행 19:2)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번째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침)례를 받았느냐?” (행 19:3)

그들은 회개하고 요한의 침례를 이미 받은 믿는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성령의 침례’와 ‘예수이름의 침례’,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이 불확실한 그들에게 ‘예수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주고 성령을 받도록 안수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때 12명쯤 되는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예언과 다른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행 19:1-7). 그들은 비로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헌신된 신자입니까?

예! 가장 가치있고 복된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

당신의 구원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확실합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거듭나셨습니까?

에베소의 신자들처럼 불확실하지는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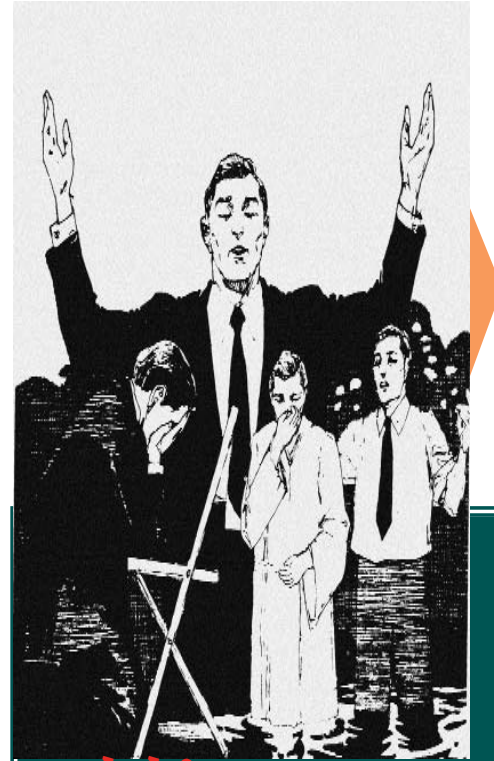
만일 그렇다면 복음에 연합하여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체험이 당신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전도지에 기록된 내용에 관하여 더 알고 원하시는 분은 아래 교회로 찾아 오시거나 연락 주십시오.



제자:J&G Mission,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75-1 호산나 B/D 302호
Tel:(031)257-8725 jegomi@paran.com

예수와 복음



복음의 3 단계

당신은

그냥 믿는 신자입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믿는 신자 & 거듭난 그리스도인

‘믿는 신자’와 ‘거듭난 그리스도인’, 무엇이 다를까요?
같은 의미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기독교를 믿는 신자라 해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에 다니는 신자이지만 아직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신은 스스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인정해 줄찌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실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 7:21-24)

신자란 보편적인 의미에서 교회 모임에 출석하고 성경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단어 의미 그대로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한 자, 그리스도와 합한 자에게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믿는 신자는 많으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모임에 정기적으로 출석한다고 해도 그런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며, 거듭남의 길이며, 단 하나뿐인 구원의 길입니다.

어떻게 예수께 속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 속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와도 같은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연합함으로 이루어 집니다(롬 6:1-5).
복음이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①죽으시고 ②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③다시 살아나사(고전 15:1-4)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은 3단계입니다.

- ① 죽으심
- ② 장사되심
- ③ 부활하심

이 복음에 연합할 때 비로소 “예수께 속했다” 할 수 있고, 거듭난 것이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롬 6:5)

복음의 1 단계 죽음



예수 그리스도



나

죽음에 연합하는 길 - 회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롬 3:10, 23).
죄의 댓가는 사망, 곧 영원한 형벌입니다(롬 6:23).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실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같이 우리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 회개는 죄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롬 6:2).
- 회개는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갈 6:14).
- 회개는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는 것입니다(갈 5:24).
- 회개는 내 방식대로 살던 죄의 길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눅 5:32)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행 17:30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 3:9)

그러나,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같이 망하리라” 눅 13:3)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죄와 옛 생활에서 돌이켜 회개하셨습니까?
당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입니다.

복음의 2 단계 장사



예수 그리스도



나

장사에 연합하는 길 - 물침례

죽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할 일은 시신을 매장하는 일일 것입니다. 생전에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마찬가지로 수박에 없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은 급히 장사되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신이 죄에 대해 죽었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죄와 옛 사람을 장사지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6:3-4, 골 2:12).
침례는 죄와 옛 사람을 장사지내는 것이므로 믿음으로 침례받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습니다(행 2:38, 행 22:16).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16:16에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고, 사도 베드로는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했습니다(벧전 3:21).
이처럼 침례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족속을 제자삼을 뿐 아니라 반드시 침례를 주라고 지상명령(至上命命)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마 28:19).

당신은 복음을 믿으십니까? 죄사함을 위해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행 22:16)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1. 장사되려면 완전히 물 속에 잠겨야 합니다.

‘세례’로 번역된 헬라어 ‘βαπτισμα’ 나 영어 ‘baptism’은 ‘잠긴다’는 의미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 뿌리는 약식세례는 없고 언제나 침수세례만 있습니다.

2. 침례는 반드시 ‘예수이름’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침례가 언제나 ‘예수이름’으로 시행되었습니다(행 2:38; 8:16; 10:48; 19:5).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이름’ 속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요일 2:12, 행 10:43).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골 3:17).
※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준 예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복음의 3 단계 부활



예수 그리스도



나

부활에 연합하는 길 - 성령침례

죽고 장사된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고후 5:17).
부활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이 비로소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한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롬 8:11)

그 때에는 모든 거듭난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여 그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빌 3:21).
따라서 성령은 우리를 영원히 살릴 새 생명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보증의 인(印)침입니다(엡 1:13).

하나님의 복음은 죄사함을 위한 물침례와 더불어 성령의 침례를 통해 우리에게 구체화 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확고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물은 물침례요, 성령은 성령침례입니다(요 3:3-5).
참된 믿음, 그것은 그냥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느낌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이란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어떻게습니까?
신앙 생활은 하고 계시지만 참으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